

폭염에 밥상물가 급등...기름값도 치솟아

채소·과일 농산물에 수산물 값도 올라 서민경제 '신음' 광주 휘발유값 1당 1599.30원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폭염의 여파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여기에 기름 값까지 최고가를 경신하며 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당 평균 2.5원 오른 1616.5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줄곧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4주 연속으로 연중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다.

지난 11일 기준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3.22원 오른 1당 1599.30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25일 1601.77원을 기록한 이후 3년 8개월(1326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용 경우 역시 현재 일주일 전보다 2.78원 오른 1당 1400.63원을 기록하며 2014년 12월 29일 1404.73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문제는 한동안 기름 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공사 측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심화는 상승폭을 제한했다"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제품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 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물가를 띄우며 전반적인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날 수협노랑진수산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월 30일~8월 4일) 노랑진수산시장에 입하한 국산 주요 수산물의 가격이 일

제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평균 경락가는 민어 자연산 1kg이 4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지난해 평균보다 40% 비쌌다. 참돔 자연산 1kg은 2만3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및 지난해 평균보다 50% 비쌌다. 농어 자연산 1kg은 1만9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지난해 평균보다 40% 올랐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는 1kg에 1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지난해 평균보다 10% 인상됐으며, 오징어와 갈치는 각각 1kg당 3400원, 1만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지난해 평균보다 10%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산이 포함된 연어와 킹크랩, 대게나 지난 1년간 값이 폭락한 전복, 일부 조개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요 어류 전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출하량은 207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으며, 8월 첫째 주 노랑진수산시장의 수산물 입하량 역시 지난해보다 30%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수급 관리가 불안정한 수산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폭염과 고수온 현상의 여파가 적지 않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원유(原料) 가격 인상 등 생산비용 증가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우유제품 가격을 3.6%(흰 우유 1l 기준) 올리기로 했다. 우유 값 인상은 빵과 커피 등 식품 전반의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만 누가크래커 드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식품관에 대만의 유명과자 누가크래커 전문브랜드 '몽상82'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몽상82'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유명세를 얻은 브랜드로, 향후 6개월간 오리저널 누가 8개 1박스 8500원, 올인원 누가 24개 1박스 1만7000원 등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쇼핑 제공>

6월 광주·전남 생산·고용 '폭'

지난 6월 광주·전남의 생산과 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 6월 제조업 생산은 고무·플라스틱(-25.2%), 기타 기계·장비(-8.5%)를 중심으로 감소해 작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전남 역시 기타운송장비(-34.6%), 금속가공(-26.3%)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5.2% 감소했다.

반면,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6월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했고 전남은 1.1% 높아졌다.

수출은 광주 2.8%·전남 16.5% 증가했지만 수입도 광주 3.5%·전남 36.4% 증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금호타이어 '글로벌 탑 5' 시동 ... 28일 비전 선포식

더블스타 인수 후 첫 행사... 설비투자 방안 제시 주목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탑 5' 타이어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광주·곡성 공장의 설비투자를 확대, 수십년간 축적해온 타이어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제시될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오는 28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금호타이어 비전 선포식을 연다.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뒤 열리는 첫 행사로, 차이용선 회장이 직접 전체 생산직 노조원들에게 회사의 미래 발전 방안을 밝히는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경영계 시각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국내공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과 타이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 노조원들에게 직접 설명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체 생산직 직원을 비롯, 차이용선 더블스타그룹 회장과 김중호 대표이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역 경영계에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광주·곡성 공장 등 국내 공장에 대한 구체적 설비투자 방안이 제시될 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 등은 지난 4

월 노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시설투자계획이 제출되면 시설자금 용도로 2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약속한 상태다.

노사 양측은 또 설비투자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광주·곡성공장에 대한 단계적 설비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광주공장 이전 방안을 비롯한 광주·곡성공장에 대한 시설투자계획이 가시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선포식에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 안팎에서는 국내 공장 독립경영 방안과 고용 확보 방안에 대한 회사측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하반기 수출경기 지난해보다 악화"

광주·전남 중기 10곳 중 3곳 전망

광주·전남 중기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가 지역 수출기업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 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수출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29개(26.1%)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수출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업체는 25개(22.5%)에 머물렀다.

절반이 넘는 57개(51.4%) 업체가 수출전망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 업체가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27.9%)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16.2%, 일본 12.6%, 미국 10.8%,

수출에 악영향 미칠 불안요인



베트남 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체들은 수출 상대국과 교역 위축(34.5%), 국내 대기업의 수출 연합 부진(31.0%) 등을 악화 전망 이유로 꼽았다.

하반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복수응답)으로는 미·중 무역분쟁(49.1%), 환율불안(40.0%), 국제유가 상승(30.9%), 신중국 경기 불확실성(25.5%) 등을 꼽았다.

지역 업체가 체감하는 수출 애로사항은 가격 경쟁력(23.4%), 원자재 가격 상승(14.4%), 해외시장 정보부족(14.4%), 자금력(12.6%), 경쟁 심화(11.7%) 등으로 나타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메모리 512GB·블루투스 지원 S펜 등 삼성전자 '역대급' 갤럭시노트9 공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사진)이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갤럭시노트9를 공개했다.

공개된 갤럭시노트9는 4000mAh 배터리, 128GB·512GB 메모리, 10nm 프로세서, 최대 1.2Gbps 다운로드 속도 등으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갤럭시노트9 내장 메모리는 기본 128GB 용량으로 출시돼 전작(64GB) 대비 두 배 늘었다. 512GB 내장 메모리 모델도 출시돼 현재 최대 용량의 512GB 마이크로 SD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1TB 메모리 용량까지 늘릴 수 있다.



대비, 밝기, 화이트밸런스, 채도 등을 최적으로 조정하는 '인텔리전트 카메라'를 탑재했다. 단체 사진에서 누군가 눈을 감거나 흔들려서 선명하게 촬영이 되지 않

았다면 '눈을 깜빡였어요', '사진이 흔들렸어요' 같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또복권 (제81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	
16 25 33 38 40 45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594,534,840	7
2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일치	61,774,640	49
3 5개 숫자 일치	1,527,995	1,981
4 4개 숫자 일치	50,000	97,667
5 3개 숫자 일치	5,000	1,638,089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60Box: ₩130,000 -> ₩80,000),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